

신앙과 예술: 기독교 예술의 대한 성경적 이해

서나영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provide a concrete lens of Biblical view of art through Christian faith, and sought to find a practical way for Korean Reformed churches and Christians to develop artistic culture with Christian spirituality. Tracing 'Christian art' is a branch of culture that can not be expected to be evident because of the vast range of art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diverse cultures throughout history and the broad teaching and experience of Christian doctrines and theologies. Nonetheless, the present study is important because of the cultural missionary role of Christian art activities and the missional task of the Korean Reformed theology. In particular, South Korea's Christian culture and arts, which welcomed the unified Korea, have a significant role as a leader of cultural mission to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hristian arts is a dynamic culture that can play a decisive role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Reformed Church in the future, so it needs biblical and theological diagnosis and concrete proposal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biblical principles of Christian art and applies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 grace and the antithesis of Christian spirituality which the Reformed church should aim for. Based on this, three approaches that art works can become Christian arts will be introduced and th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t culture within solid Christian spirituality will be suggested.

Key Words: Christian art, the Bible and the arts, antithesis, common grace, Christianity and culture

1. 서론

기독교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는 역사를 걸쳐 다양한 문화들과 엮어진 예술의 방대한 범위와 기독교 교리와 신학들의 폭넓은 가르침과 경험이 교차됨으로 명백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예술 연구는 고대서부터 현재까지 세계 문화와 역사, 즉 서방국가들을 시작으로 유럽의 문화적 혼합과 그 민족에 의해 지배된 식민지들의 땅들과,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와 한국에 미친 복잡하게 결합된 문화양상의 한 가닥을 추적하는 광대한 과제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미셸 브라운 (Michelle Brown)은 기독교 예술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한다.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의 명령에 따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된 이래로 이 영토 내에서 제작된 예술의 대부분은 기독교적 주제와 사상을 반영했으며 때로는 세속적인 영역의 예술과 지나칠 정도로 융합되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은 세속 왕국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오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의 예술, 광고, 영화, 방송 및 출판이 여전히 그러하듯이 기독교 신앙에 도전을 하기도 했다. 예술에 대한 이런 대중적 맥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정서적, 지적, 경험적 반응을 자극하는 역할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내포한 예술의 아름다움은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신앙의 주제를 다룬 예술작품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Brown, 2008: 10).

기독교 예술이란 이처럼 명백함을 기대할 수 없는 문화양상의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재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예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선교적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견고하고 건강한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사명 때문이다. 특히 통일한국을 눈앞에 맞이한 한반도의 기독교 문화 예술은 북한을 향한 문화선교의 선두주자로서 중대한 교회적 사명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술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제안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속화되었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문화는 최근 약 30년 전부터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예술 세계관 세우기에 관심을 기울여 많은 신학교들은 기독교 예술 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종교개혁 이후 밀어내기만 했던 카톨릭과 동방정교의 예술과 유익한 대화를 함으로 잘못된 또는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예술 문화를 바로잡으려 분투하고 있는 추세다(Dyrness, 2001: 813) 해방 이후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는 한반도는 다시 일어난 미국 개혁주의 기독교 문화 예술 학문의 흐름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신학자 신국원이 주장했듯, 독자적인 “한국의 전통적 삶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일과 더불어 미국 이외 지역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좀 더 넓은 연구와 모범을 참고하는 일(신국원, 2002: 175)”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¹⁾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예술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연구하여 예술 작품들이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일반은총과 대립(antithesis)과의 적절한 관계를 예술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안의 “썩은 벌레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도록 돕는 효과적인 기독교 렌즈를 제공함에 있다.²⁾ 필자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예술 변증학자인 마크 카펜저(Mark Coppenger)의 기독교 문화 슬로건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술과 접촉 할 때 하나님, 기독교의 진리, 인간의 일상생활과 주변 문화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반응을 갖도록 격려하는 기독교인의 렌즈 또는 안경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전제하며 기독교 예술의 본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을 하는 것’은 작품이나 다양한 예술형식의 예술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 안에서 발견하고, 인식하며, 특별한 계시 및 해석 과정에서 독자, 청중 및 시청자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도 포함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술의 양상과 목적을 논하여 기독교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예술 안에서 일반은총(common grace)과 대립(antithesis)의 관계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기독교

교 예술이라 정의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법인 ‘독점적,’ ‘암시적,’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을 분류하여 소개하여 기독교 예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예술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예술형식들의 작품들을 마주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예술의 본질을 종합하여 사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로 뛰어난 문학 예술 작품”이라는 영문학자이자 신학자인 라이켄(Leland Ryken)의 주장처럼, 성경은 그 자체로 문학 예술일 뿐 아니라, 음악, 문학, 건축, 시각 예술 등이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고 인간의 개인과 사회의 삶에 녹아있는 삶의 기본 요소임을 나타낸다(Ryken, 2005: 62). 성경 안의 예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 교리와 얽혀져 복잡한 미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대하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기독교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 속의 예술적 상상력의 양상과 스타일을 살펴보고 예술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술적 능력을 주신 목적과 예술에 관한 오용에 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1. 현실에 근거한 자유로운 상상의 예술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예술의 양상을 관찰하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예술 형식이나 스타일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라이켄은 성경 안에 표현된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을 예술성의 가치와 함께 설명하여 그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성경 저자들의 문학적 정교함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문학 작품의 높은 예술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발견된 문학적 장르를 열거하는 것이다. 가장 큰 범주는 내러티브(narrative) 또는 이야기(story)이다. 이 범주 아래 영웅의 이야기, 서사시, 비극, 비유, 복음의 예가 있다. 시 형식 안에는 노래 가사, 속담, 결혼시(epithalamion), 목가, 찬사(encomium), 찬송가, 예언시 및 애가(elegy),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세분화 된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 외 눈여겨 볼 문학적 형식으로는 예언서의 일부의 웅변술, 계시록을 포함한 환상에 관한 문학, 풍자 및 선지자들의 가두 연극(street theater)이 있다.

예수의 모범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문학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예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변가이자 시인 중 한 명이다. 그의 전형적인 담론은 구체적이고, 일화, 비유, 은유를 포함한 시적인 표현이다.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은... 예수의 설교의 체험적 구체성에 관해 언급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했다. 그는 끊임없이 은유와 상징으로 말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이다(Ryken, 2005: 41-42).

라이켄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의 표본으로서의 성경은 무엇보다 ‘예술과 진실’ 즉, 사실주의(realism)와 환타지물(fantasy)의 갈등과 충돌을 와해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Ryken, 2005: 42). 한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손봉호는 그의 책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서 예술과 진실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것이 예술의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정직”과 “진실,” “순수성”이 예술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손봉호, 2018: 174). 이 예술이 가진 ‘정직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성경은 실제의 역사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 표현함에 있어

뛰어난 현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실성’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학 안 사실성은 등장인물과 사건 및 설정을 실제 삶에서 그러지듯 복사하거나 모방하여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에 나타난 드보라의 바락의 승전가는 24-30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시스라를 무찌른 이야기를 묘사한 시를 살펴보자.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라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으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29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로나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라 하였으리라 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야엘이 시스라를 무찌른 장면의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과 함께 27절에는 시스라의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꾸부러진’ 모습을 회화화시켜 단어들을 반복하고 재구성하여 그들의 통쾌함을 강조한다. 그 다음 28-30절에서는 원수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려 어머니의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 시녀들의 대화를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듯 상상하여 묘사하고, 노래가 끝나는 31절에 이 승리를 ‘해돋음’의 비유를 사용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노래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승리에 대한 통쾌함의 마음으로 있을 법한 가상의 현실을 상상하여 진실을 전하는 훌륭한 사실주의 문학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성경 안의 문학의 현실성에 이어 성경의 판타지(fantasy) 문학, 즉 독자를 마치 살아있는 듯한 현실과는 다른 대체의 세계로 데려가는 장르 또한 자주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스가라는 4장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6장에 ‘네 병거’에 관한 환상 등을 기술하고, 에스겔 22:17-22에는 풀무 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타는 환상이 나타나며, 다니엘 또한 7장의 ‘네 짐승’에 관한 환상, 8장의 ‘숫양의 뿔’이 자라는 환상의 예언적인 시와 글이 기록되었다. 성경은 판타지 스토리를 사용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며 이끌어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학 장르의 다양성 외에도 성경에 나온 음악예술 형식에서도 그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다. 에베소서 5:19와 골로새서 3:16은 교회 노래의 세 가지 장르인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묘사한다.³⁾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의 음악은 “사회적이고, 회중이며, 아마추어” 노래임을 유추할 수 있다(Ryken, 2005: 51). 반면 구약성경의 음악은 솔로몬이 헌당예배를 드릴 때 거대한 찬양대와 악기연주자들의 음악이 묘사되어 있으며(대하 5:11-14), 이는 신약 시대의 서민 음악과는 다른 전문직의 음악가들임을 알 수 있다(대상 15:16, 22; 25:7). 성경 안의 음악은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⁴⁾ 갖가지 악기의 음악(시 98:5-6; 150:1-6), 가사와 결합된 음악(삼상 10:5-6; 회중

음악,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즉흥음악(출 15), 솔로몬 성전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시 봉헌예배 때 연주된 전문 음악가들의 노래와 연주(느 12:31-43) 등 자유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보여준다.

건축 및 시각예술에서도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안의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성경 안의 십자가, 빵, 포도주, 어린양, 빛 등의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성막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은 속죄를 상징하고(출 37:1-9), 신성한 빵이 담긴 금테와 금고리로 장식된 상에는 순금 대접과 손가락을 올림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심을 나타내고 있다. 물두멍은 영적 정결을 상징하고(출 38:8). 금 촛대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상징 예술(symbolic art)이었다(Soltau, 1971: 17-25).

표현(구상주의적) 예술(representational art)은 기존에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의 사물을 묘사하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 성막과 솔로몬 성전 안의 예술에 주된 예술양식이다. 성막에는 하늘과 땅의 이미지가 그 구조와 비품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고(출 25:18-22), 아몬드 꽃과 새싹들과 꽃이 금 등잔대에 새겨져 있었다(출 25:31-36).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장식된 휘장과 그룹들(출 26:31). 그리고 제사장 옷들의 석류장식과 금방울의 장식들이(출 28 :33-34) 이를 말해주고 있다. 솔로몬의 성전은 더 정교한 표현 예술로 장식되었는데, 모든 성벽에는 황금 그룹이 장식되어 있었고(왕상 6:23-29, 32, 35). 두 돛기둥은 석류와 백합으로 장식되었으며(왕상 7:15-20), 또한 열 개의 돛 받침 수레는 새끼들과 사자들과 황소들과 꽃과 야자수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왕상 6:32, 7:27-37).

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추상미술(abstract art) 또한 가득했다. 대표적으로 아론의 겹옷에는 실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청색 석류가 수놓아져 있었다. 성전 안에 표현된 돛을 부여 만든 바다는 둘레가 45피트에 달하며 10,000 갤런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원형의 대야로,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조롱박으로 장식되었고, 3마리씩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12개의 소 형상의 등이 이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왕상 7:23-26). 이 예술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자세한 건축물과 장식들의 색깔과 모양들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대상 28:11-28). 라이켄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위대한 추상 예술가”라고 표현하며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한 기존의 형상이 없이 유에서 창조한 추상개념의 새로운 형상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Ryken, 2005:57)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예술 장르와 형식의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의 기독교적 요소는 장르와 스타일, 형식 또는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이다. 위 다양한 분야의 예술형식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표현이다. 아론의 겹옷의 청색의 석류와 성경에 주를 이루는 즉흥적 노래들은 현실에 근거한 자유로운 상상의 예술이며 무엇보다 성경의 문학 자체는 하나님이 상상의 예술을 허락하셨음을 궁극적으로 보여준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기독교 예술가들은 판타지와 상상력에 의해 위협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상상력은 별을 뛰어 넘어야 한다(Schaeffer, 1981: 96)”라고 이를 강조한다. 루시 쇼(Luci Shaw)는 성경의 진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상력의 원리를 연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저자들은 문학적 형식을 사용했고, 특히 그들은 상상력 또는 이미지 떠올림이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문학적 전제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Shaw, 1981: 32-33). 실제로 성경저자들은 은유나 상징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소통할 때 이미지와 은유와 역설법의 언어로 대화하였고, 그의 백성들이 차지할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어들 또한 모두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로마서 8:31-19의 신학적 설명을 읽으며 성경의 가장 신학적인 부분조차도 은유와 상징, 반어법과 대구법이 가득한 것을 주목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사랑에서 끊으리요”의 질문과 함께 그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어법과 은유와 대구법들을 사용하여 교차적으로 대답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라이켄은 “오히려 성서의 작가들과 예수님은 문학적 담화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문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라고 주장한다(Ryken, 2005: 43-44). 이에 루이스(C.S. Lewis)는 “성경은 문학 이후에 읽혀지기 때문에 문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감각이 있다”고 표현하며 성경 자체가 가진 문학성을 지지한다(Lewis, 1958: 3). 그러므로 예술적으로 묘사되는 여러 가지 성경적 스토리나 주제들은 그 자체로 다양한 예술적 장르나 스타일이 기독교적 진리나 교리를 구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과 교차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2. 예술의 목적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예술의 목적을 네 개의 큰 범주로 묶어 그 의미를 제공하려 한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예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구약의 성전 예배 안의 예술은 음악과, 시각 예술 및 시가 통합되어 나타났고 예술의 경험이 거룩한 예배와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은 음악예술로 기악 음악과 시가 만나 찬송가의 표본을 보여주는 장편의 찬송이 담긴 시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음악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나타났고(대하 5:11-14)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찬송시를 부르라고 가르친다(고전 3:16).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는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시 16:11), 우리의 “영혼을 훈계”하고(시 16:7) “흔들리지 아니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시 16:8-9).

성경 안에 나타나는 예술의 두 번째 역할은 ‘진리를 표현하는 능력’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술의 힘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더 가까이 만나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36:30에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한 예술적 능력을 부여하신다(출 35:30-35). 성전의 예배를 위해 뽑힌 음악가들의 예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창 4:21)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기록된 문학적 책이다. 아가서와 에스더는 이를 증명할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술남미 여인을 향한 사랑노래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노래 시이고, 에스더 금식이라는 종교적 실천을 담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이름의 언급 없이 역사의 일화를 기록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담은 진리를 내포한다. 이 두 책은 직접적인 신학이나 교리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느끼게 하는 문학이다.

또한 성경은 일상의 찬양음악이 원수들을 이길 강력한 힘ियो 무기임을 선포하여 예술의 진리를 나타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나타낸다(느 8:10; 대하 20, 시 149:5-9).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감옥 문이 열렸고(행16:23-26), 유다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오직 찬양으로 승리를 거둔다(대하 20:21-28).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음악을 통한 찬양이 그에게 속한 것을 명하시고, 그의 명령인 찬송은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한다. 즉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기뻐하시고, 그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영적 싸움 중 큰 힘과 무기가 되어, 죄로부터의 해방과 치유를 선물 받고, 믿음을 고백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문명과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에 있다. 창세기 4:21-22에 나타난 인간 문명의 예술과 기술의 능력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고, 성경 중 잠언은 영적인 부분을 떠난 일상생활의 분별 문제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잠 25:25; 26:27). 그 외에 인간의 삶을 위한 음악 예술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우물을 파며 노래했고(민 21:16-18), 포도 수확을 하며 노래하고 파수꾼도 노래했다(사 16:10; 52:8-9). 그들은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었고(수 6:20) 승전가를 불렀다(민 21:27-30). 음악은 악령에 괴로워하는 사울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였고(삼상 16:14-23), 솔로몬은 여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 노래하기도 하였다(아 1:8). 이에 쉼퍼는 “기독교 예술은 항상 종교 예술, 즉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예술이 결코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 즉 감정, 감정, 몸, 삶은 시와 소설의 중요한 주제이다. .. 기독교인이 그의 예술에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이다”라고 표현한다(Schaeffer, 1981: 95-96).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술의 목적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즉 예술 작품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조하라 명하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제작법을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만들되 이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for glory and beauty)라고 두 번 말씀하신다(출 28:2, 40).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תְּפִאָּרָה(티파라)는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신학자들은 여러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한다. 미국의 문화신학자 더니스(William Dyrness)의 연구에 따르면, 명사 이 티파라(תְּפִאָּרָה) 구약에서 40번 나타나며 “장식(ornament)” “화려함(splendor)” 또는 “영광(glory)”을 의미한다. 외적 아름다움이 있는 아론의 예복과(출 28:2),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중 말한 “아름다운 면류관(겔 16:12)” 같이 외적 화려함을 말하기도 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잠 16:31)”과 같이 자랑스러운 내적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한다(사 61:10). 역대 상 29: 13에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의 신성한 표현에도 사용되었다(Dyrness, 2001: 865). 라이켄이 주장하는 것처럼 ‘티파라’라는 단어는 “예술적 형태 자체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쉼퍼도 성전 장식에서 표현 예술의 목적은 “실용적인 기능이 없다”고 제안하며 아름다움 고유의 목적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고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그가 남겨두신 창조의 은총이다.

3. 예술의 오용과 남용

성경의 예술 연구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예술은 쉽게 잘못 사용되어지며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술도 죄와 타락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술은 우상이 될 수 있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예와, 에스겔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을 벽에 그려 우상으로 섬긴 예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예로 열왕기하 18:4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다고 기록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져 치료의 역사를 가져왔던 놋뱀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왕하 5-6). 음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남용에 대한 예들 또한 있다. 선지자 아모스는 “노랫소리를 그치라(암 5:23-24)”며 그 타락을 암시하고 술과 방탕과 어우러진 모습으로 비판하기도 한다(암 6:4-5). 이사야 5:11-12은 술 취한 방종한 사람들의 음악은 여호와 앞에 악한 것임을 선포한다.

예술의 오용과 남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우상숭배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신다(신 4:19; 출 2:3-4).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 내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신다(5절). 6절에 백성들은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후(7-11절)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선포하신다(14절). 이 장신구들과 그들의 금송아지는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음(롬 1:23; 시 106:19-20)”을 말한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불의한 인간들이 새와 동물, 파충류와 닮은 이미지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교환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의 창조물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출 33:3).⁵⁾

즉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이미지이며, 우상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리석고 왜곡된 마음을 드러낸다. 죄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지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알기 원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자율’의 열매를 맺었고(창 3:5),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해매이게 되었다(렘 2:11-13). 그러나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제시하셨고, 이는 인간의 예술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형태가 선한 예술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술적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는 원칙과, 인간의 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예술의 기본이 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이어갈 것이다.

IV. 예술안의 일반은총(common grace)과 기독교 영성의 대립(antithesis)

본 장에 전개될 예술의 신학적 방향성을 논하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예술가 브살렐을 부르

시는 모습(출 31:1-11; 35:30-36:2)을 통해 전제된 기독교 예술의 기본 원칙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예술적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그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재능을 하나님의 영이 부여하신다는 것이다(출 35:31). 17세기까지 예술은 공예나 과학과 차별화되지 않을 정도의 기술이나 숙달을 언급했으며 예술을 구성하는 것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 왔지만, 일반적인 설명은 인간의 상상력에 기인한 기술력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Art, Encyclopædia Britannica, 2018). 브살렐에게 지혜, 총명, 명철과 함께 부여하신 예술적 능력은 그가 만들 예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삶과 세계에 대한 지혜와 예술가가 활동하는 물리적인 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 할 것이며 이는 ‘예술적 기술’을 의미함으로 숙달인 장인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예술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술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숙달된 예술가로부터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작품이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의 예술적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평범하거나 그 우수성이 부족하여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 예술의 영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술이 세상 예술과 다른 한 가지는 예술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일 것이다.⁶⁾

본 장에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술에 담긴 ‘영성’에 관한 주제이다. 성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저서『The City of God』(하나님의 도성) 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성’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의 도시’의 두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을 설명하며, 이 두 도시들은 천사의 타락 이후 서로 싸웠던 신앙과 불신앙의 두 영적 힘의 상징에 대한 구체적 주제들을 다루었다(Augustine, 2003). 모든 인간은 이 두 공동체 중 하나에 속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있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 산다. 세상과 그 문화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기독교 영성의 대립(antithesis)의 마음이 존재하는 어렵고 복잡한 지대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만 ‘아직 아닌’ 시대에 살고 있음으로(히 2:8-9) 인간의 문화의 세계 속 영적 전쟁은 역사를 지나며 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⁷⁾

니버(Richard Nibuhr)가 그의 책 『Christ and Culture』에서 분류한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다섯 가지 역사적인 관점은 (1)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대한 단순한 거부, (2) 교회가 지배적인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의 그리스도’ 관점, (3) ‘문화 위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를 끌어 오신다는 믿음, (4) ‘역설 속의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문화의 요구 사이에서 영구하지만 희망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루터교의 위치) (5) 문화는 문화가 전복된 인간 본성과 교회를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계의 불빛으로 비추는 것으로 보는 ‘문화 변혁자’이다. 이 다섯 가지 문화관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펼친 주장으로, 필자는 역사의 문화와 예술의 상황, 그 안의 개별적 분야, 시대에 따라 강조되어야 하는 세계관이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이에 필자는 “역사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은... 복음과 신앙이 상황과 여건에 의해 다양하게 굴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는 것”임에 신국원의 지적에 동의한다(신국원, 2002: 130). 그 과제는 성경적 연구의 범위가 광대하고

역사적인 신학적 주장들 또한 비교분석해야 하겠지만, 지면의 한계로 본 장에서는 ‘문화와 엮어진 기독교 예술의 관점들’을 논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일반 은총의 교리와 기독교 영성의 대립(antithesis)을 정리하여 논지를 이어가고자 한다.

1. 기독교 영성의 대립(antithesis)과 예술

대립(antithesis)은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독교 철학적 용어로 일반은총(common grace)과 반대의 특별은총의 개념과 함께 연결되어 설명되어진다(Bahnsen, 2007: 101). 반 틸(Cornelius Van Til)에 의하면 ‘대립’은 비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수단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진리의 공식화의 열쇠이기도 하다(Van Til, 1976: 295-330). 대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 창조되며, 본질적으로 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엡 2:1-3)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 최악된 중심적 마음과 행동과 대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적 성향을 부여했음을 전제한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요 18:36),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으며(마 10:34), 세상이 그의 백성들을 미워할 것과(요일 3:13), 그의 백성들의 투쟁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장악한 어둠의 영적세력을 대항하는 것이며(엡 6:12), 그의 백성들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고후 10:3-5)하는 자들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귀신의 왕”(막 3:22)이요,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시험한 존재로(눅 4:6)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고후 4:4) 이 사람들은 “악한자의 아들들”(마 13:38)이라 불린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며 이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 있어 그들과 함께 명예를 메거나 사귀지 말 것을(고후 6:14) 권면한다. 즉 하나님은 어둠에게서 그의 자녀들을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긴 것이다(골 1:13)

이렇게 대립은 성경적 가르침으로 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으로부터 소외된 것으로 묘사되고(창 6:5) 인류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죄의 목적으로 향하게 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의 길을 얻었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별되면서 시작되었다.⁸⁾ 이 대립은 결코 완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은총과 함께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퍼져 나가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아직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영광을 구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승리로 이끄신다. 이 대립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로 성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구별하여 언급하였다(Augustine, 2003).

이 대립의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며(딤후 4:4-8),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항복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게 이끈다. 그렇다면 인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의 여행에 예술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를 관점으로 세상문화와 예술을 바라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고 이 여정을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술가들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고 예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에 바탕한 예술의 의미를 받아들여 예술을 신격화하고 왜곡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허무주의(nihilism), 외설과 폭력 쾌락에 대한 사실주의(realism), 반윤리적 자유주의 등에 문을 열어 예술의 본질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사유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이에 문화와 예술의 복음적 진리의 선교에 대하여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에서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대립’의 교리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대립’의 개념이 토대가 되어 예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무엇이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 작품들을 통해 구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교회 밖의 예술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단순하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대립’의 터널을 통해 그 작품 안의 기독교적 비전을 찾아 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사명일 뿐 아니라, 예술을 대하는 일상에서 개인의 신앙과 직결되어 나타나는 문화 속 영적 전쟁의 승패에 대한 중대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2. 일반은총과 예술

반면 일반은총(창조은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뜻한다. 이 은총은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의 영향을 억제시키고 삶을 유지시킬 육체적 건강, 물질적 번영, 인간의 자유와 도덕을 형성한다. 이는 사회질서와 과학, 산업의 발전, 사랑, 예술적 창조성, 다양한 지혜는 인간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뜻하며, 많은 성경말씀은 이를 지지한다. 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마 5:44-45)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날씨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시 148, 행 14:16-17)과 인류에게 부어주신 양심의 은총(롬 1:14-15; 2:14), 인류의 농업과 교육과 과학에 대한 은총(사 28:23-29), 성공과 번영 행복에 관한 은총(시 104:14-15, 행 14:16-17, 고전 4:7-8) 등의 구절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야 1:17)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여와 별개의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 될 때마다 경배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목적은 창세기 1:28-29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의 ‘창조 문화명령’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에 있다(Frame, 2001: 3).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성품, 즉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반적인 은총들의 최종 단계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Van Til, 2002: 119-121).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은총으로 인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가? 이 창조로부터의 은총에 대한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의 원천이 되는 영광을 받을 수 없으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 선함과 아름다움에 직면했을 때 창조주에게 찬양을 돌리지 않음으로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은총이 발견 된 곳마다 선을 인정하는 것에 가장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 그리스도인이 제작한 예술 문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독교 영성의 ‘대립’과 타협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비 그리스도인들의 예술에 삶의 일부 진리와 통찰력, 선함을 가지고 있음

을 인식하여 그 안의 일반적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신학적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했듯이 또한 ‘이교도 문학자들의 글’들 또한 인용한 것과(행 17:28) ‘고전 문학’에서 인용한 표현들은 이러한 일반은총의 선함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를 진리에 적용시킨 좋은 예이다.⁹⁾

3. 일반은총과 대립의 관계

‘문화 안의 선함’을 나타내는 일반은총과 ‘부패한 문화를 경계’하는 대립은 역설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의 경우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가?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립의 치중의 방향은 그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지 말해준다. 예술에 있어서 이 관계는 가장 균형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을 대함에 있어 기독교 영성의 대립을 실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선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은총을 존중해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문화 안의 다양한 종류와 성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더 대립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은총이 더 많이 분포하지만, 만약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대립을 택해야 한다. 대립이 일반은총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며 일반은총을 세상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경비이기 때문이다.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그의 논문 『The Nature of True Virtue』(진정한 미덕의 특성)에서 미덕을 도덕성과 아름다움에 관련하여 “진정한 미덕”과 “부차적인 미덕”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진정한 미덕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아름다움으로, 부차적인 미덕은 세속 세계에 만연한 열등한 미덕으로 정의하고 있다(Edwards, 1960, 2). 이 미덕은 일반은총에 속한 예술적 요소들이 포함되며, 부차적인 미덕은 진정한 미덕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Edwards, 1960: 27-40) 이 두 미덕과의 사이에 균형적 관계를 연구한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일반은총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신하며 “특별은총이 없다면 일반은총은 아무런 목적이 없다”(Van Til, 2001: 119)고 주장한다. 즉 그 두 미덕의 관계 안에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에게 “작동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Van Til, 2001: 121).¹⁰⁾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에 대한 교차적 관점은 기독교 예술의 본질을 적용시킬 때 잘 드러난다. 기독교 피아니스트이자 교회음악 박사인 최미야는 카이퍼의 은총 이론을 기악 음악에

적용시키며 예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도와 수용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예술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일반은총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 결과, 어떤 예술음악이 크리스천 연주자들의 믿음에 의해 구속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감상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거의 알아챌 수가 없다. 오직 크리스천 음악, 특별히 크리스천 예술음악을 통해서만 감상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진리를 공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천 예술음악은 일반은총의 궁극적인 목적-특별은총으로 인도함을 성취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은총의 궁극적 목적의 달성은 작곡자, 연주자, 그리고 감상자의 의도와 수용의 면과 관련이 있다 (최미야, 2016: 72)

그리스도인들은 예술 안에 표현된 세속적인 견해와 가치관을 거부하지만 세속적인 예술작품으로부터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개혁주의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변혁 또는 이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일반 은총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와 예배 밖에서 “왕을 위한 문화적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Van Til, 2002: 124).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세속적인 것을 거절 할 것을 결정할 때 큰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분별력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여는 성경을 통해 얻어야 하며 그 안의 하나님의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 가운데 위치하는 예술의 역할과 목적을 마음 판에 새기고 목에 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대립의 토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변혁의 목적은 무엇일까? 신국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선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의를 추구함(신국원, 2002: 202)”이라고 말한다.

일반은총의 수용은 때로는 위험하지만 성경은 그 가치가 있음을 말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당시 부패했던 이집트인들의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음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도성으로의 여행은 세속 적인 것 안의 일반은총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한다(Augustine, 1988, 554). 인간의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제한적이고 모자라지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지식과 예술적 자원을 던져버려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쉐퍼(Francis Schaeffer)가 요한계시록 15:2-3을 묵상한 후 “예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땅의] 예술의 형태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운반된다. 이에 어떤 플라톤 이론의 분리의 개념이 있을까? 결코 분리는 없다(Shaeffer, 1982: 390)”라고 확신한다. 카이퍼 역시 “문화는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죄와 얽힌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란 제한적 소멸은 있지만, [문화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새 땅에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일반은총의 선한 역할을 지지한다(Van Til, 2002: 121). 견고한 대립의 이해 안의 선함의 발견은 ‘기독교 예술’을 이해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 토대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기독교 예술의 지표라 할 수 있겠다.

III. 기독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기독교 예술’이라는 호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술에 가능한 것일까? ‘기독교 예술’은 그리스도인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예술들 뜻하는가? 그렇다면 영국의 유명한 동성애 작곡가로 알려진 무신론자 마이클 티펫(Michael Tippett)이 제작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Confession)에 쓰여진 글과 라틴 정통 성경(Vulgate)만을 인용해 가사를 담은 오라토리오(oratorio), 『Vision of St. Augustine』(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전)은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없을 것이다.¹¹⁾ 또한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반 고흐(Van Gogh)의 수많은 성화들은 기독교 예술의 범주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술이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는 예배 장소에서 경건과 예배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예술일까? 그러면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한 멜 깁슨(Mel Gibson)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그리스도의 고난, 2004)는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성경 주제의 작품들과 기독교 신앙을 그린 수많은 문학작품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술이란 성경적 이야기 또는 명백하게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 상징 및 인물을 표현한 성화와 관련이 있는 예술일까? 그렇다면 기독교 정신을 표현하고 수많은 영적 영감을 주는 한국의 운동주 시인의 많은 시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며, 빛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을 표현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미술작품들과 아름다운 기악곡들 또한 제외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예술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타락하여 죄에 왜곡된 인간의 마음과 예술의 초월적인 힘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리탱(Jacques Maritain)이 지적했듯이, 음악, 예술은 사물을 “자신보다 더” 만들 수 있으며,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행위를 넘어서 더 깊은 인식 수준으로 침투한다(Maritain, 1978: 127). 그러므로 기독교 예술을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의 방향성 연구와 함께, 다양한 기독교 교리들을 인식함으로써 평가되고 사유되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결론 지었듯이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기독교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스타일, 형식 또는 주제의 문제가 아님을 살펴보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작품이 구체화하는 관정보다는 오히려 예술 작품이 기독교적 관점을 구현하거나 기독교 신앙과 교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엿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기독교 관점은, 쉐퍼가 분류한 세 가지 예술의 목적에 근거한 네 가지 종류의 예술적 관점과(Shaeffer, 1982: 396-96, 401), 라이켄이 분석한 예술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적 관점(Ryken, 2005: 199-205)을 카이퍼와 반틸의 일반은총론과 대립 이론, 또한 신국원의 개혁주의의 관점을 참고하여 재평가하고 변형하여 분류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예술의 관계적 본질과 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¹²⁾ 이 틀은 기독교적 요소의 예술참여의 수준과 방법에 따라 ‘독점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 ‘암시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로 나뉘며 서론에서 언급한 기독교 관점의 렌즈 또는 안경에 투사되는 관점들이라 할 수 있겠다. 예로 들어질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품들은 이 관점들의 다양성과 예외성을 모두 다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각 관점 연구를 장려할 영감의 원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독점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

첫 번째로 다룬 ‘독점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은 작품의 주제가 명시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담고 있는 예술을 뜻한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관계한 복음의 내용을 다룬 예술, 천국 및 성경적 사건들과 회개와 기도 등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담은 예술,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계된 주제를 다룬 예술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반응을 다룬 예술 또한 포함된다. 이 관점의 예술은 중심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두고 있으며, 예술가와 그 예술가의 작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최고 목적을 두고 그 안에 표현된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표현한 예술이다. 이 관점은 기독교 공동체와 세상 문화 속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예술’이라 불리기에 안전한 범주에 있음을 제안한다.

이 관점의 기독교 예술은 기독교 세계관의 독점적 비율과 함께 그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경 안의 예로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시들과 홍해의 기적 후에 부른 모세의 찬송시 등이 있고, 바울의 복음에 대한 문학적 웅변들과, 요한계시록의 ‘어린양’과 ‘두루마기’ 등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환상 가득한 예언서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기독교 예술을 발전시킨 로마 시대의 성화 작품들로 시작해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성가와 미술, 건축 및 조각 작품, 시들과 문학작품 또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때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속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지만 마음에 깊게 들어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한다. 이에 좋은 예로 13세기 화가였던 맛디아 그뤼네발드(Matthias Grünewald)의 작품 『Crucifixion』(십자가 처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당시 어두워진 하늘 아래 십자가를 안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양 아래 성배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있다. 십자가 왼쪽에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애도하는 이미지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고뇌가 느껴지는 고개 숙인 머리에 가시관과 못 박혀 있는 손과 발,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스도의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진 세례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부분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요한복음 3:30절의 구절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구약의 선지자들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순수하게 모든 영광과 찬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모습이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1915년 이 작품을 마주한 후 자신의 신학 연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세례요한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를 펼쳤다고 말한다(Barth, 1957: 76).

존 번연(John Bunyan)의 저서 『The Pilgrim's Progress』(천로역정, 1678)는 순례자의 여정은 은유, 비유법을 사용해 수많은 찬송시와 상징적 미술작품을 예를 들어 자세히 묘사한 기독교 문학소설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여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뛰어난 문학작품이다. 순례자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설명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내용의 글들이며 번연의 상상으로 이루어낸 순례자의 여정 속 영적 장애물들의 표현은 시대를 넘어 강력한 기독교의 진실을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문학적 예로는 기독교 시인 김남조(1927)의 시들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가시관과 보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상하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듯 쓴 애절한 사랑의 시로 복음의 전반적 내용을 함축하여 들려주는 아름다운 기독교 시로 꼽힌다.

또한 2014년에 미국에서 상영된 제임스 킨드버그의 다큐멘터리 영화 『Sing Over Me』(싱 오버 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동성애를 극복한 미국의 시편 작곡가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이야기를 담은 뛰어난 예술 영화이자 독점적 관점의 기독교 예술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교회들에 맞서 복음주의적 진실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You are my All in All)의 작사 작곡자로 유명한 저니건이 만든 수많은 복음송과 아름다운 시편 곡의 찬송들과 함께 핵심적인 성경구절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이며 죄의 삶은 사망임을(롬 6:23) 선포했다. 이 시대의 난제를 개혁주의 독점적인 기독교 관점으로 풀어내었고, 이 영화를 통해 용기를 얻고 변화 받은 동성애자들의 간증은 예술의 초월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에게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예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3. 암시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

예술을 보는 두 번째 기독교적 관점은 ‘암시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예술가가 성경과 기독교 교리 또는 기독교 상징에 대한 암시를 작품에 사용한 예술에 해당된다. 기독교의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성경 어휘 또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일부 사용하여 암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출하는 예술이 이 관점의 예술에 해당된다. 이 관점의 예술에는 기독교 세계관 이외에 다른 세계관들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술가의 기독교 암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울 수 있다. 성경에서의 예로 잠언과 에스더를 들 수 있다. 잠언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분별력과 도덕적 태도에 대한 격언들을 은유와 비유를 통해 표현한 문학적 글로, 고대 근동 랍비들의 삶의 지혜에 관한 세계관이 일부 투영되어 있으며(Niehoff, 2012: 279-80),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분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암시적 기독교 관점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에스더 또한 “금식하여 부르짖은(에 9:31)” 기독교적 실천의 암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주의 세계관을 나타낸 책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 암시적 관점은 예술 속 기독교적 암시가 차지하는 크기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결정된다. 진정한 기독교인 예술가들의 예술 속에는 기독교적 암시의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운보 김기창 화백(1913)의 『아기 예수 이집트로 피난』(1950-1952) 작품을 예를 들면, 이 그림 속엔 한국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한복 복장의 가족과 노비가 언덕을 넘고 있는데 저고리를 뒤집어 쓴 여인이 아기를 안고 황소에 타고 있고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앞에서 소를 끌고 있으며, 뒤에 따라오는 노비와 당나귀 위의 붓다리 짐은 어딘가로의 피난을 연상케 한다. 이 그림은 한국전쟁 직후 그린 그림으로 그 당시 한국 전쟁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아기 예수 이집트로 피난’이라는 제목과 함께 헤롯왕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요셉의 암시적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적 요소를 독점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림 속 다른 세계관들과 함께 기독교 암시나 제목이나 작품해설을 통해 기독교적 암시를 던지는 많은 기독교 미술인들 작품이 이에 속한다.

카톨릭 음악 작곡자이자 신학자인 메시앙(Olivier Messiaen)은『Quatuor pour la fin du Temps』(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 1941)의 8악장의 가사가 없는 기악곡을 통해 영원하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였고 각 악장의 제목과 성경구절을 통한 짧은 곡 해설을 통해 기독교 종말론적인 암시를 주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내포한 제목과 해설이 있는 음악들 또한 이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기독교 암시의 수많은 문학과 시들 또한 포함된다. 윤동주의 시 『초한대』(1938)는 12월 24일에 쓰여 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시로 “광명의 제단” 위 “깨끗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눈물과 피,” “제물의 위대한 향내” 등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암시했던 어휘들을 사용하여 그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거룩한 향기의 위대함을 표현했다. 이 시는 식민지 시대에 있던 한국의 상황과 어우러져 많은 독립투사들의 죽음을 기리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의 어휘로 제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암시적 기독교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때때로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빌려다 쓴 예술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과 상관없는 예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Shakespeare) 희곡의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암시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어가 등장한다. 라이켄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고전적인 예술은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양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작품에 기독교 세계관적 암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Ryken, 2005: 200). 이런 작품들은 예술가의 제작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독자들의 신앙에 비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돕는 기독교적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예로 2012년 9월 16일에 개최된 한국의 대표적 이단인 신천지의 예술 축제에 행해진 행위예술의 대부분 요한 계시록에 나온 이미지와 어휘로 가득하지만 그들이 잘못 해석한 구원받은 ‘12지파’ 같은 계시록의 특정 이미지를 만든 작품은 기독교 신앙과는 교차점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조지 윈스턴(George Winston)의 대표적인 음악 『Thanksgiving』은 서정적인 선율의 피아노 음악으로 그 제목이 ‘추수감사절’ 또는 ‘신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지만 자연숭배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기독교 사상중 하나인 뉴에이지(New Age) 음악으로 기독교 신앙에 헌신된 작품은 아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 일부 애로 영화가 ‘다윗과 밧세바’와 같이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딴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작품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기독교의 암시와 상징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작품들 내에서 더 깊은 기독교 신앙적 예술이 가능하며 이러한 작품들은 ‘기독교 예술’이라 불리기에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

마지막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는 관점은 예술에 대한 기독교의 “내재적” 관점이다. 명시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포괄적이고 내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이 관점은 크게 두 단계의 예술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내재적 관점의 예술은 기독교 신앙에 관계된 명시적 표현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내재적이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파급력 있는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다. 성경 자체의 문학적 예로는 아가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어법을 들 수 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인 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의 표현이 없는 여인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시’지만 솔로몬의 다른 글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이 시가 내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Tanner, 1997: 23-25).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적인 비유들은 이 관점의 예술을 지지할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눅 12:27)”라는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백합화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비밀은 이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진리였음을 말해준다. 그 밖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혼인 잔치 비유,’ ‘추수 잔치의 비유,’ ‘보물이 묻힌 땅을 사는 비유’ 등 수많은 은유와 비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글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내재적 관점의 글들이다.

현대에 들어서며 과학적 사고에 갇힌 세상 문화 속에 기독교 선교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명시적 표현을 감추고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도인 문화선교 목적의 예술이 자주 등장한다. 저명한 영국 신학자 루이스(C.S. Lewis)의 7권으로 된 판타지 소설『The Chronicles of Narnia』(나니아 연대기, 1950-56)는 나니아라는 말하는 동물이 가득한 환상의 세계로, 인간세계 어린이들이 나니아 세상에 우연히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모험을 그린 소설이다. 나니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왕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자 ‘아슬란’이 부름받고 어린이들이 이를 도와 나라를 세우는 스토리로,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마녀와의 전쟁에서 아슬란의 제단 위 죽음과 부활함으로 나니아의 정권을 다시 세움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구속사역의 진리를 내재하고 있다. 이 소설 시리즈에 대한 영감은 여러 출처에서 가져왔고,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전통적인 영국과 아일랜드의 동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과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상상을 바탕으로 빌려 썼다. 이 문학소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성인과 아동의 판타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TV방영과 라디오, 연극에도 사용되었으며, 미국 디즈니 영화사에서 영화 시리즈(2005, 2008, 2010)로 출시되며 전 세계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뛰어난 내재적 관점이 기독교 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내재적 관점의 기독교 예술이 대중문화 음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시인과 촌장(하덕규, 오종수)’의 『가시나무』(1988)는 대중문화에서 크게 성공한 곡 내 안에 ‘당신’의 실 곳이 없음을 노래하며 ‘당신’이 존재가 마음에 내주하시길 기도하며 쓴 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의 주님의 내재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길로 인도한 기독교 내재적 노래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하덕규는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이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며 직접적인 기독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시임을 고백한다. 또한 최근 한국의 뛰어난 예술가이며 보컬이자 기독교 문화선교자인 유나열의 『바람기억』(2016)이라는 노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나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라는 주제 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독교적 명시 없이 인간의 사랑이야기를 빌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노래와 함께 제작된 비디오 영상은 한 신부가 소녀시절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아버지를 회상하며 백마 탄 신랑을 기다리다가 순결한 모습으로 만나 혼인하는 영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사랑, 다시 오실 신랑으로 비유되어 순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적 진실을 표현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 예술이다.

이처럼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이 뛰어난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는 반면,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한다. 이 단계의 예술은 예술가의 의도를 넘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안경을 쓰고 볼 때에 성사되며. 많은 작품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벽과 제단에는 꽃과 사자와 같은 자연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듯이, 아름다운 풍경이나 정물, 인간의 사랑이나 우정 등을 표현한 노래나 시들, 시각 예술이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예술이 기독교 신앙을 저해하는 범신론적 태도나 불륜의 사랑을 미화시킨 것 등을 제외한 윤리적 기준 아래, 예술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삶의 견해와 아름다움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Ryken, 2005: 202-203). 전 장에서 성경 속의 일상을 위한 노래시들은 인간의 일상에 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예술일 수 있음을 논했듯이, 특별히 가사가 없는 기악곡이나 연가, 교향곡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시각예술에서 이런 예술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술은 예술의 다양성과 복

합성으로 인해 기독교 관점에서 논란의 주제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한 고전 음악과 건축 양식, 미술양식들은 꾸준하고 강한 영향력과 함께 비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타 종교의 예술에까지도 많은 부분이 답습되고 있음을 인지함과 함께,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풍요로운 삶으로 영위하는 목적의 예술은 성경에서도 지지됨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술을 기독교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신학적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일반은총의 기독교 교리이다. 필자는 이 단계의 예술을 ‘기독교 예술’의 호칭보다는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으며 예술을 감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립’과 ‘일반은총’의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볼 수 있음을 강조한다.

V. 결론: 기독교 예술의 과제와 방향

죄로 부패한 ‘세속’과 ‘창조 은총’이 융합되어 발전한 예술의 역사와 작품들의 신학적 성찰이 기독교 신앙에 왜 중요한가? 이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 예술을 대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충만한 예술의 의미와 영향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간과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삶에 대한 진단, 정의 및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예술가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기능을 살려 인간의 삶을 새롭게 전환하게 도울 수 있으며 일상에 더 생생한 색깔을 입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예술 활동이란 그 작품에 기독교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그 작품을 ‘기독교 예술’로 만들고, 승화하며, 감상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두 세계인 ‘기독교 신앙’과 문화 속 ‘세속예술’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세계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예술을 볼 수 있는 기독교 관점의 창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창조의 교리나 아름다움에 관한 신학적 연구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예술의 이해’를 제공하고 그 예술의 다양한 목적과 범위에 관계된 ‘일반은총과 대립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는 ‘독점적,’ ‘암시적,’ ‘내재적’ 기독교 관점의 예술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성경은 그 자체로 문학적이며 예술을 인정한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예술은 사실적이며 환상적이고, 상징적이거나 표현적일 수 있으며, 즉흥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 자유로운 스타일의 형식들로, 예술적 능력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인간에게 부여된 상상력과 기술적 재능으로 꽃을 피운다. 성경 속 음악, 문학 및 시각 예술 등의 예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로 쓰여져 열매를 맺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로이 영위하거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결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성경의 예술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왜곡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거나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 은혜’와 타락으로 인한 ‘부패한 세상 문화’가 공존하는 신비한 영역인 것이다.

‘기독교 예술’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필요에 부응하고 그에 맞게 인식 가능한 상징과 이미지 또는 소리와 글을 통해 가르침을 전달할 때 그 종교성을 최대치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신앙의 표현이 없는 특정한 예술 작품이 그 순수함으로 이 세상의 육체와 물질을 뛰어 넘는 의미를 가진 존재의 차원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때 영적이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 안의 보편적으로 선하고 숭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적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작품은 하나님의 창조은총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신국원은 한국의 개혁주의 문화관을 정립하며 “예술은 종교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인간에 대한 반성과 삶의 문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혁할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신국원, 2002: 300)”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독교 예술을 정의하려고 시도함과 함께 예술 안의 기독교 영성의 대립과 일반은총의 관계를 창조-타락-구속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기독교 관점의 예술을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술을 거룩하게 담을 수 있는 신앙의 렌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더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술가들은 기독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적어도 때때로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교인인 것을 그들의 예술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예술 안에 “일반인들이 볼 때도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충격을 느낄 정도로 노력”하는 자세로 “불신자들을 삼킬 만큼 매력 있고 내실 있는” 기독교 예술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 (신국원, 2002: 177).

필자는 모교의 기독교 심리학자 에릭 존슨(Eric Johnson)이 동료 신약학자 조나단 페닝톤(Jonathan Pennington)과 함께 좀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심야영화를 보고, 좀비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좀비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스토리 속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거듭나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비추어 봄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함과 함께, 적어도 존슨과 페닝톤 본인들에게 이 좀비영화는 훌륭한 기독교 영화였다는 여담을 들은 기억이 있다. 세상 예술 속에 만연한 반(反)기독교적 세계관들 속에서, 비록 그것이 작고 숨겨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심어두신 선하신 창조은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 확신하며, 문화보다 강한 기독교 예술 영성의 부흥운동을 소망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ugustine of Hippo. (2003).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 _____. (1988). *On Christian Doctrine*.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First Series. Trans. J. F. Shaw. (Ed.) Philipp Schaff. Grand Rapids, MI: Eerdmans.
- Barth, Karl. (1957). *Biblical Questions, Insights, and Vistas.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Trans. Douglas Horton. New York: Harper Torchbacks.

- _____. (1957). *The Doctrine of God. Church Dogmatics*. Vol. 2. Edinburgh: T. & T. Clark.
- Begbie, Jeremy S. and Stephen R. Guthrie. (2011).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s between Music and Theology*. CICW Liturgical Studies Series. Grand Rapids: Eerdmans.
- Blaiklock, E. M. (1959). *The Acts of the Apostles: An His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Borthwick, Alastair, Trevor Hart, and Anthony Monti. (2011). Musical Time and Eschatology.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s between Music and Theology*. (Ed.) Jeremy Begbi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71-294.
- Broadbent, J.B. (1972). *Paradise Lost : Introduction*. Cambridge Milton Series for Schools and Colleges.
- Brown, Michelle. (2008). *The Lion Companion to Christian Art*. Oxford, England: Lion.
- 최미야. (2016). **은총 음악 그리고 피아노: 크리스천 피아노 예술음악의 신학적 의미와 작품 소개**. 경기도 안양시: 새찬양후원회.
- [Choi Miya (2016). Christian Piano Art Music: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and Categorized Repertoire. Kyung Ki, An Yang: NPSE.]
- Doty, William G. (1973). *Letters in Primitive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Dunn, James D. G. (2002). *Roman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8a. Dallas: Word.
- Dyrness, William. (1985). Aesthetics in The Old Testament: Beauty in Contex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8.
- _____. (2001). *Visual Faith: Art, Theology and Worship in Dialog*. Grand Rapids: Baker.
- Edwards, Jonathan. (1989).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Ethical Writing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1(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60). *The Nature of True Virtue*.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ontaine, Carole R. (1982). *Traditional Sayings in the Old Testament: A Contextual Study*. Sheffield: Almond Press.
- Frame, John M.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 Theology of Lordship*. New Jersey: P&R.
- Hausman, Carl R. (1960). Maritain's Interpretation of Creativity in Art.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9(2), 215-219.
- Hustad, Donald P. (1993).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 Johnston, Robert K. (2009). Theological Approaches.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Film*. (Ed.) John Lyden. New York: Abingdon.
- Kline, Meredith G. (2006).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OR: Wipf & Stock.
- _____. (1963). *Treaty of the Great King: The Covenant Structure of*

- Deuteronom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Lewis, C.S.(1958). *Reflections on the Psalm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Maritain, Jacques. (1953). *Creative Intuition in Art and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sh, Clive. (1997). Film and Theologies of Culture.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Movies and Meaning*. (Ed.) Clive Marsh and Gaye Ortiz.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1-34.
- McKane, William. (1970). *Proverbs: A New Approach*. Philadelphia: Westminster.
- McKinnon, James. (1987). *Music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 Douglas J. (1996).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 Niebuhr H. Richard. (1951)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North, Gary. (1976). The Problem of Theological Paradox. *Foundations of Christian Scholarship*. Vallecito, CA: Ross House Books, 295-330.
- Oh, Peter S. (2006). *Karl Bart's Trinitarian Theology: A Study in Karl Barth's Analogical Use of the Trinitarian Relation*. London: T&T Clark.
- Schaeffer, Francis A. (1981). Some Perspectives on Art. *The Christian Imagination: Essays on Literature and the Arts*. (Ed.) Leland Ryken. Grand Rapids: Baker.
- _____. (1982). *A Christian Worldview*.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 _____. (1974). *Art and the Bible: Two Essay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 Schonfield, Hugh J. (1959). *The Song of Songs*. New York: Mentor.
- Soltau. H. W. (1971). *The Holy Vessels and Furniture of the Tabernacle*. Kregel Publications.
- Shaw, Luci. (1981). Imagination: That Other Avenue to Truth. *Christianity Today*, 32-33.
- 서나영 (2018). 개혁교회 예배 안 시각예술 사용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58, 175-212.
- [Seo, N. Y. (2018). Visual Beauty in Reformed Worship: Biblic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Korea Reformed Theology*. 58, 175-212.]
- 손봉호 (2018).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CUP.
- [Son, B. H. (2018). *Christianity Pushed Around*. Seoul: CUP]
- 신국원 (2015). *니고데모의 안경: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서울: IVP.
- [Sin, G. W. (2015). *Nicodemus' Glasses: A Story of Christian Worldview*. Seoul: IVP.]
- _____. (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IVP.
- [Sin. G. W. (2002). *Story of Culture by Sin G. W.* Seoul: IVP]
- _____. (2004).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in. G. W. (2004). *Cultural Studies for Transformation and Shalom*. Seoul: Korea InterVarsity Press.]
- Tanner, J. Paul. (1997). The Message of the Song of Songs. *Bibliotheca Sacra*. 154(613), 23-46.
- Topp, Dale. (1976). *Music in the Christian community*. Grand Rapids: William B.

- Eerdmans.
- Ryken, Leland. (2005). *The Liberated Imagination: Thinking Christianly About the Art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 _____. (1984). Jesus as Poet and Parable. *The New Testament in Literary Criticism*. New York: Frederick Ungar.
- Van Til, Henry R. (2001).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Kuyper, Abraham. (1907). *Gemeene Gratie II*. Kampen, The Netherlands: J. H. Kok.
- Veith, Gene Edward. *The Gift of Art: The Place of the Arts on Scriptu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3.
- White, John Bradley. (1978). *A Study of the Language of Love in the Song of Songs and Ancient Egyptian Poetry*. Missoula: Scholars Press.

논문초록

신앙과 예술: 기독교 예술의 대한 성경적 이해

서나영 (Na Young Seo)

본 논문은 기독교 신앙으로 예술을 보는 성경적 관점의 구체적인 렌즈를 제공하여 한국 개혁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영성을 가진 예술 문화를 이룩해 가는 데에 필요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예술'을 정의하는 것은 역사를 걸쳐 다양한 문화들과 엮어진 예술의 방대한 범위와 기독교 교리와 신학들의 폭넓은 가르침과 경험이 교차됨으로 명백함을 기대할 수 없는 문화양상의 한 갈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재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예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선교적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견고하고 건강한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사명 때문이다. 특히 통일한국을 눈앞에 맞이한 한반도의 기독교 문화 예술은 북한을 향한 문화선교의 선두주자로서 중대한 교회적 사명을 안고 있다. 또한 기독교 예술은 앞으로의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독교 예술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연구하여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일반은총(common grace)과 기독교 영성의 대립(antithesis)과의 적절한 관계를 예술에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들이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단단한 영성의 예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독교 예술, 성경과 예술, 대립, 일반은총, 기독교와 문화